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 등 창조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성경말씀: 롬2:1-8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2024년을 평안하게 넘겼다.

교회의 미디어 사역 확산,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 많이 나누어 주고 있다. 15% 성장
이러는 가운데 2024년 12월 29일 오전 7시 40분, SBS 일요 다큐, 성경의 여정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 영미 학자들의 증언, 미국 침례교회 소개, 또 저와 우리 교회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렸다.

우리는 Bible 빌리버, 시12:6-7, 마24:35,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

딤후3:16-17처럼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줄 믿는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 경제가 안 좋고 특히 지난 1개월, 비상계엄, 탄핵 사건으로 혼동과 위기
가운데 있어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또 성도들 가운데 암, 치매 등 어렵고 힘든 병으로 고생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2025년 첫 주일에 가장 합당한 설교일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 >, 공의의 하나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1, 2, 3, 5, 12, 16절에는 판단, 심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를 보면 로마서 2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다.

‘판단하다’나 ‘심판하다’, judge 표준국어대사전

1.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다. 재판하다.

2. 신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다스리다. 물론 신은 하나님, ‘다스리다’는 죄의 사실을 밝혀 벌을 주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의 잘잘못을 가려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형벌을 주시기도 한다.

이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신다고 한다. 이럴 때 공의는 영어로 judgment이고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판단의 공의, 판단의 규범 등으로 번역되었다.

즉 하나님은 창조물에 대해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

또 그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은 친히 판단의 규범들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공의롭게 하신다고 말한다.
믿어도 된다. 마구잡이로,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즉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창18, 19장, 소돔과 고모라는 인신 제사, 동성애 등 하나님을 극심히 대적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말한다.

창18:23-32

24절 50명, 28절 45명, 29절 40명, 30절 30명, 31절 20명, 32절 10명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다.

그 도시에 롯과 그의 가정이 의인으로 살고 있었다.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빼내시고 심판을 피부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인간의 형법 제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기에 가능하다.

로마서 2장 1-8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의롭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임을 강조하신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급선무이다.

사람의 문제: 로마서 1장 18-32

1장: 19-20,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21-23, 알면서도 하나님을 떨치고 우상숭배

28-32, 버림받은 마음에 내어 주심,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일한 일을 함

2:1, '저 사람 죄인이야' 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도 동일하게 죄를 지어 자신을 정죄한다.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2절,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완전한 진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록된 성경말씀대로 된다. 판단의 규범

11절: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11)

이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인간의 외형적 조건이나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은 흔히 지위, 재산, 학식, 선행, 혹은 도덕적인 삶을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보신다.

동기와 의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는 것(사1:2-3).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무엘상 16장 7절,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내밀하고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 하나님은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의에 따라 심판하신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진리의 빛에 비추어 돌아보아야 한다.

3절의 경고: 인간의 이중적인 판단 기준, 인간의 나약함, 부족함,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를 빼내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종종 편견과 차별 속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인종, 성별, 사회적 배경, 혹은 문화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약자든, 정치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회개의 기회

4절은 하나님의 성품 중 중요한 특징인 오래 참으심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죄 명단(1장: 29-31)

이들은 대개 세 부류로 나뉜다.

1.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며, 물질주의와 인간 중심 사상을 강조한다. 그들은

과학이나 이성을 신봉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특별 창조를 고의로 무시하고 진화론이라는 마귀의 허수아비 이론을 숭배한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 왜? 주인을 몰라보므로

2.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이념적으로 내세우며, 기독교를 인민의 적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탄압해 왔다. 지금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으려는 중북 주사파 세력들, 북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의 무도하고 무법한 행위를 보라.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 왜? 주인을 몰라보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중북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 구원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3. 불가지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불가지론자들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 왜? 주인을 몰라보므로.

하나님은 롬1:29-31의 죄들을 행하는 자들, 즉 불신자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임을 보여 준다.

현시대에 구체적으로 이들은 불신자,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기독교를 대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인 창조론과 초자연적 계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과학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는 교회를 폐쇄하거나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빈번하다. 불가지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며,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심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따라 살아간다.

5절: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를 위한 기회이지, 죄를 지속할 수 있는 변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두 부류의 사람들

6-8절

1.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자들(6), 요1:11-13
2. 논쟁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들(7), 롬1:29-31, 죄의 결과물
3.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롭게 심판을 하신다(6).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좌파 우파 모두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국 운동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선하게 사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마더 테레사 등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나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판정: 히9:27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규정의 핵심: 창조 세계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경에 기록된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선한 행위는 구원에 일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를 열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여자의 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음으로 보여 주셨다(행12:36).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3:16

따라서 착하게 살고 아스팔트 위에서 애국 운동 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운다 해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16:26,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미루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라를 망치기 위해 탄핵 찬성하고 중북 주사파 세력을 추종하는 분들,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몰라서 그렇게 하였다.
 이런 분들도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알고 오늘 당장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 성경대로 살면 절대로 중북 주사파, 무신론, 공산주의/사회주의, 불가지론, 진화론자가 될 수 없다.

죽음과 회개의 필요성

2024년 12월 29일에 우리는 무한 공항 대참사를 목격하였다. 순식간에 무고한 사람들 179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비행기 사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질병으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한국 하루 사망자 870명, 전 세계 16만 명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신다. 첫째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고, 둘째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누가복음 13:3, 5)라고 경고하셨다. 이는 죽음이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신 것이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인격적인 변화이다.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주인을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의 첫 발은 바로 하나님의 죄 해결책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 영원한 형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8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와 격노로 갚아 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불 호수는 사망과 지옥도 던져지는 최종 형벌 장소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이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형벌의 장소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과 불 호수의 끔찍함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원래 불 호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며 멸시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마귀의 동조자가 되어 지옥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가고 성경은 강조한다.
 여기에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 불가지론자 등의 죄악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며 선하게 살려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모두 포함된다.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우파든, 좌파든 다 죄인이다 롬3:10-12. 3;23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격노가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

"영원한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지옥에서의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그분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8절)
 이 경고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직면할 심판을 보여준다.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지만 동시에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느니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것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 지금이 구원의 때

창조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보라, 지금은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회개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질 뿐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지금 즉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기를 간절히 권면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2025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유와 변영의 복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특히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